

# “주민센터 명칭 꼭 바뀌어야 하나요”

### 광주 주민센터 25곳 7월까지 ‘행정복지센터’로 개명 전국 2018년까지 완료…2년간 2개 명칭 동시 사용 현판 교체 등 혈세·행정력 낭비…주민 혼선도 불가피

“지금도 주민들은 다 동사무소라고 불러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으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주민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명칭 변경으로 센터의 현판은 물론 각종 안내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일괄 변경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향후 몇 년간 ‘주민센터’와 새로운 명칭인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쓰여야 하는 상황이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주민센터’ 95곳의 이름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꿀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동구 3곳, 서구 6곳, 남구 4곳, 북구 6곳, 광산구 6곳 등 주민센터 25곳의 명칭을 1차적으로 변경하고, 오는 2018년까지 전체 주민센터의 명칭을 단계적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주민센터의 인력을 늘리는 등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주민들이 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60여 년 동안 사용되어오던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지난 2007년 주민센터로 변경된 지 10년 만이다. 문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인력 충원이다. 당장 주민센터 현판 교체비용과 함께 이정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안내판에 대한 정비도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1곳의 주민센터당 3명의 복지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문제다. 자치구의 한정된 인력 안에서 주민센터의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각 실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복구의 경우 27개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81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명칭 변경도 논란이다. 지난 2007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이 일괄 변경된 것과 달리 연차적으로 변경이 추진하면서 동에 따라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이 달리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자부 등에서 세부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해 자치구 공무원들마저도 명칭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게 될 맞춤형 복지가 이미 자치구에서 해오던 일”이라며 “당장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익숙하고, 주민센터라는 이름조차 낯선 상황에서 명칭 변경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들불상’에 문규현 신부

제11회 들불상 수상자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신부가 선정됐다. 들불상 열사기념사업회는 전국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모와 추천 후보들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생명평화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문규현 신부를 제11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신영일, 윤상원, 박용준, 김영철, 박효선, 박관현, 박기순 등 ‘들불야학’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내 역사의 문에서 진행되는 들불열사 합동추모식에서 진행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다음달 9일부터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학비노조)는 2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담인력들에 대한 급식비 징수 문제 해결, 명절 상여금 지급, 임·단월 성실 교섭 등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지부도 지난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상여금 신설, 정액급식비 월 5만원 인상(현재 8만원), 방학 중 급식준비일(8일 이상 보장) 마련 등 요구안을 내걸고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혔다. 학비노조 광주지부에는 급식전담인력(영양사·조리사·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등 2950명이, 전남은 43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어 총파업에 따른 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뤄진다.’ 광주 진흥고 학생들이 25일 자신의 꿈과 진로를 적은 리본을 나무에 묶으며 꿈을 향해 열정을 불태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생이 빛이 되는 진흥 한울터’라는 주제의 꿈나무 퍼포먼스로, 학교측은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법원, 국내 첫 동성간 혼인 불인정

### “김조광수·김승환 커플 현행법으로 허용 안돼”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팍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를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 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 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별도의 입법 없이는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인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해질 19:38, 달뜨기 23:08, 달지기 08:58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wangju, and Jeju.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different areas.

Table with tide information (바다 날씨) for Gwangju, showing high and low tide times for different directions.

Table with short-term weather forecast (주간 날씨) for the week of May 27th to June 2nd, including temperature and weather icons.

## 초등교사 2576명 국정교과서 거부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우리 역사 제대로 가르치기 전국 초등 학교 교사 선언서 2576명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교과서에서 서술된 대로 역사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교과서가 위안부 서술 부분과 사진을 삭제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시켜 독재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역사를 처음 접하는 초등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과서 오류 분석 결과와 보완 자료를 참고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자기 성해 일종의 계기수업인 공동수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등 ‘우리 역사 제대로 가르치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계기수업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문가에 자기소개서 작성 비법 전수

### 전남교육청, 27~29일 진로·전공체험 캠프

전남교육청이 진로 탐색과 전공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한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과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도 받을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학생교육원에서 일반고 2학년생(남 77·여 104명)을 대상으로 ‘전공탐색 구술면접’ 캠프를 개최한다.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 입학사정관 13명이 도교육청 대입현장지원단 교사

와 짝을 이뤄 진로 영역별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와 학생부 분석을 통한 컨설팅을 해준다.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 교수들의 전공 관련 특강을 들으며 전공 체험도 가능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도 이뤄진다. 윤성중 전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구성, 진로 선택 및 대입 전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Yutap Yubless Hotel Jeju.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hotel and text describing its location, amenities, and special offer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1600-2949.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cy.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ouse and text describing the property and the agency's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H. 010-3119-6952.